



kt 강백호가 9월21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t wiz의 경기 1회 말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kt 황재균의 안타 때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백호·박찬호 어디로... '편의 전쟁' 점화

스토브리그의 꽃,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9일 막을 올렸다. KBO리그 10개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시한 21명의 FA 승인 선수를 대상으로 총성 없는 영입 전쟁을 시작했다.

강백호(kt wiz), 박찬호, 조상우(이상 KIA 타이거즈), 투수 김태훈(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최원준(NC 다이노스), 투수 최원준(두산 베어스 이상 원소속 팀)은 A등급으로, 이 선수들을 영입한 팀은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0명 외)과 전년도 연봉 200%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한다.

박해민(LG 트윈스), 우완 투수 이승현(삼성), 장성우(kt), 김범수(한화 이글스), 김상수(롯데 자이언츠), 이준영(KIA), 이영하, 조수행(이상 두산)은 B등급, 김현수(LG), 손아섭(한화), 강민호(삼성), 황재균(kt), 양현종, 한승택, 최형우(이상 KIA)는 C등급이다. B등급 보상 규모는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5명)+전년도 연봉 100% 혹은 전년도 연봉 200%, C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150%다.

FA는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각 구단은 신청 선수 기준에 따라 외부 FA 3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강백호와 박찬호다. 두 선수는 FA 시장 개장 전부터 복수 팀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강백호는 국내 팀뿐만 아니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스카우트들 앞에서 쇼케이스를 계획하는 만큼 영입전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박찬호는 의외로 빨리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박찬호는 원소속팀 KIA와 센터라인 보강이 최대 숙제인 롯데, kt 등 다수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KIA는 박찬호 외에도 조상우, 이준영, 양현종, 최형우 등 굵직한 내부 FA를 모두 잡겠다는 기조다. 이번 '겨울야구'에선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 김현수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현수는 2021시즌을 마친 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어 LG와 4+2년, 최대 115억 원에 계약했으나 2년 25억 원의 옵션을 충족하지 못해 FA 시장에 나왔다. 김현수는 옵션 미달이 오히려 몸값 불리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올 시즌 타율 0.298, 12홈런, 90타점을 기록한 김현수는 원소속팀 LG는 물론 친정팀 두산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현수는 2006년 두산에서 프로 데뷔한 뒤 2015년까지 프랜차이즈 스타로 뛰다가 MLB에 진출한 뒤 2018년부터 LG에서 활약했다.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박해민과 좌완 강속구 투수 김범수도 이적 가능성이 있다. 두 선수는 B등급이라 영입 부담도 적다.

올겨울 FA 시장에서는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 경쟁균형세 상한선이 올라가고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몸값이 50%만 계산돼 각 구단은 상당한 돈을 FA 시장에서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7년에 보수 총액 하한선(60억 6538만 원)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동안 스토브리그에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키움 히어로즈가 '큰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스키아데일리 연합뉴스

# 우승 명장 3년 30억 재계약 LG, 염경엽 감독 최고 대우

### 구단 최초 2회 우승...김태형 감독 종전 28억 넘어서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이 역대 KBO 리그 사령탑 최고 대우로 재계약했다. 프로야구 LG는 9일 "염경엽 감독과 3년 최대 30억 원(계약금 7억 원·연봉 총 21억 원·옵션 2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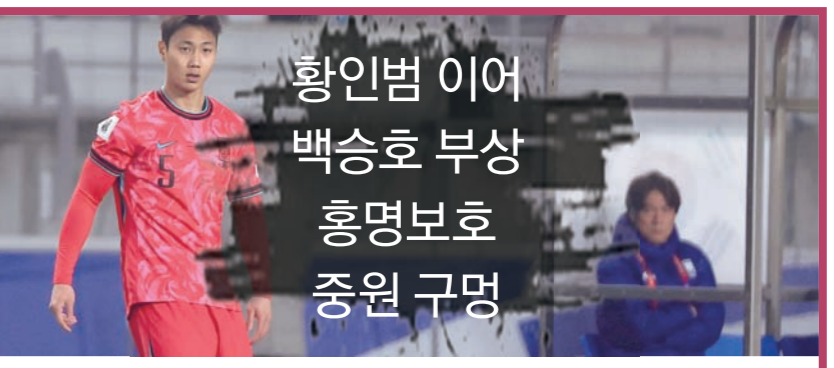
LG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통합우승(정규시즌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사령탑'이라는 빛나는 타이틀을 얻은 염 감독은 KBO리그 최초로 감독 몸값 3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염 감독은 김태형 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2020년 두산 베어스와 3년 28억 원에 계약하며 작성한 'KBO리그 사령탑 최대 규모 계약'을 경신했다.

또한 염 감독은 1995년 고(故) 이광환 전 감독, 1999년 천보성 전 감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재계약에 성공한 LG 사령탑이 됐다. 2000년대 들어 LG와 재계약한 사령탑은 염경엽 감독이 처음이다. 계약을 마친 뒤 염 감독은 구단을 통해 "역대 최고 대우를 해주신 구단주님, 구단주 대행님, 사장님, 단장님께 감사하



10월31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시상식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선수들이 염경엽 감독을 행가래 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2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백승호(왼쪽)를 지켜보는 홍명보 감독. 고양-연합뉴스

## 황인범 이어 백승호 부상 홍명보호 중원 구멍

3월2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백승호(왼쪽)를 지켜보는 홍명보 감독.

이달 A매치 2연전을 앞둔 홍명보호에 또다시 '부상 악재'가 닥쳤다. '중원의 핵심' 황인범(예예노르트)이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10일 예정된 축구대표팀 소집 오프 1분 만에 미들즈브러의 라일리 맥그리과 공중볼 경합 직후 착지 과정에서 다친 뒤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 최근 정규리그에서 2경기 연속 골로 발끝 감각이 절정에 올랐던 백승호는 9일(한국 시간) 영국 미들즈

# 저렴하게! 푸짐하게! 알찬구성 무려 240포!

(8박스)

건강한 흑염소, 活力있는 오늘을 위하여!

2,000,000 달성! 2021~2025년 5월까지

2,000,000 포 달성을 도와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축검사증명서

맑은 산 속에서 자연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를 엄선하였습니다.

이런 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 쉽게 몸이 지쳐 자주 피로를 느끼시는 분
- 기력이 예전만 못하게 약해 건강식품을 찾는 분
- 튼튼한 체력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 부모님을 비롯한 소중한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으신 분

100% 국내산 자연 방목 흑염소 국내산 흑염소에 홍삼까지...!

흑염소, 홍삼, 갈근, 대추, 생강, 천궁, 작약, 숙지황, 당귀 등 제대된 배합으로.. 알차고, 진하게!

품질을 최우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HACCP 안전관리인증

80ml×30포 (1박스)

HACCP 제조환경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제조원: 농협법인 (주)웃기네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43 ● 판매원: (주)웃이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2박스(60포) ₩99,800 → ₩69,800  
4박스(120포) ₩199,600 → ₩128,000  
8박스(240포) ₩399,200 → ₩199,000

● 무료배송 ● 50% 할인행사

행사기간 : 2025년 9월 30일 까지

제품주문 / 1588-3398 |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웃이랑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